

청년 조정 사업

한국

[교류 보고서]

JICA LIBRARY



J 1153773{5}

1996

국제협력사업단

JICA

110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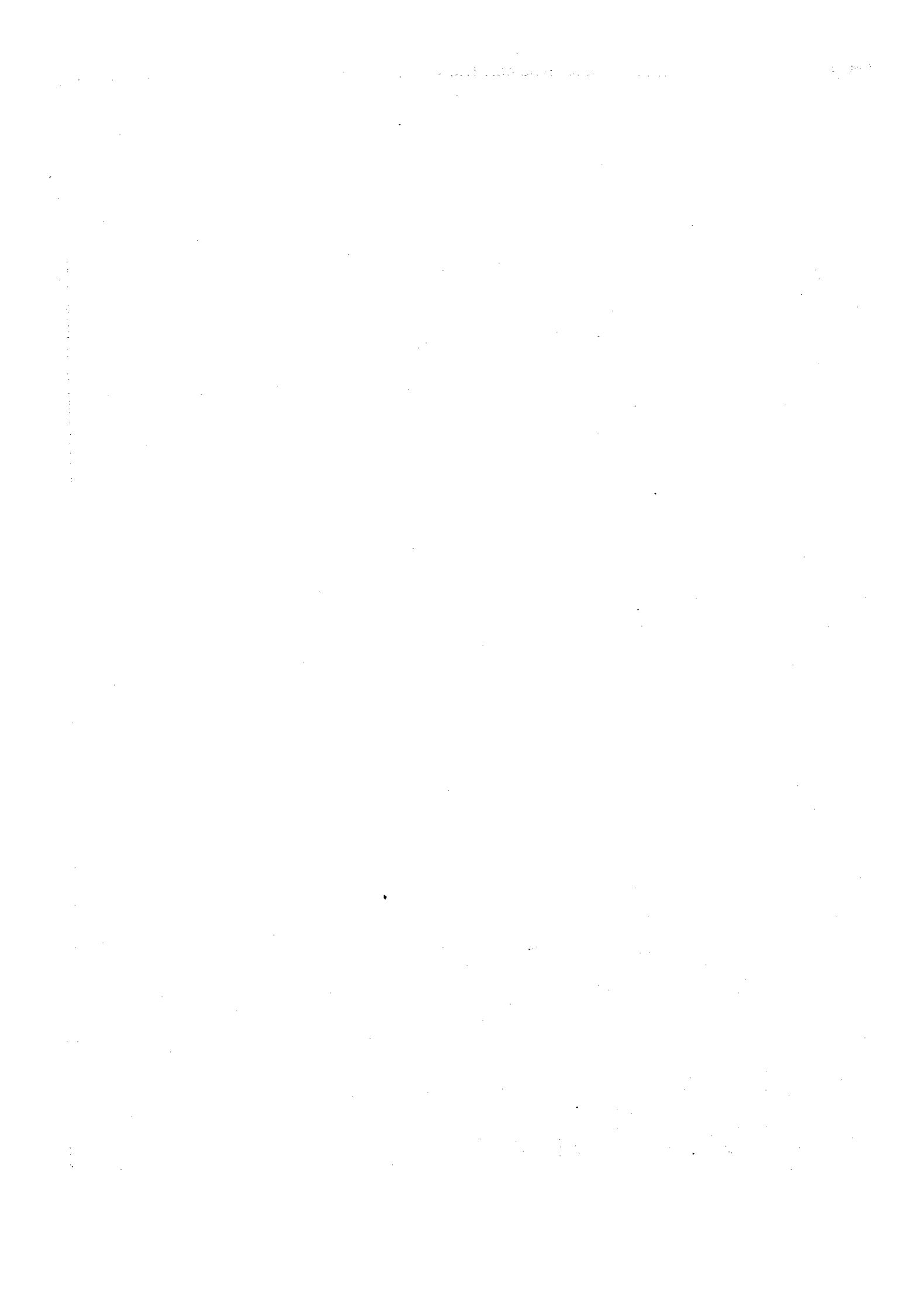
TAY

LIBRARY

研青

JR

96-34



선교의 우상이 되지 않으

1996년 10월 10일 청와대 경제부

개강식



국제협력사업단 인사 말씀



외무성 환영 인사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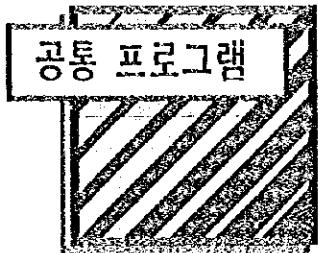
한국 청년대표 인사 말씀



긴장한 표정으로



화목한 분위기의 환영회



공통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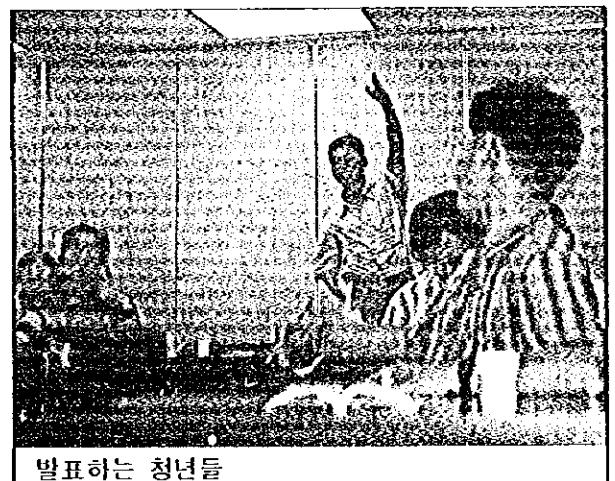
강의를 듣는 청년들



우리 어디로 갈까?



어떤 한달이 될까?



발표하는 청년들



1153773(5)



닛산자동차 요코하마 공장에서



잘 부탁합니다

분야별 도내 프로그램



기념품 증정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기가 가득찬 강의풍경



한일우정의 표시



신주쿠구청에서

합숙 세미나



「질문 있으신 분?」(파트너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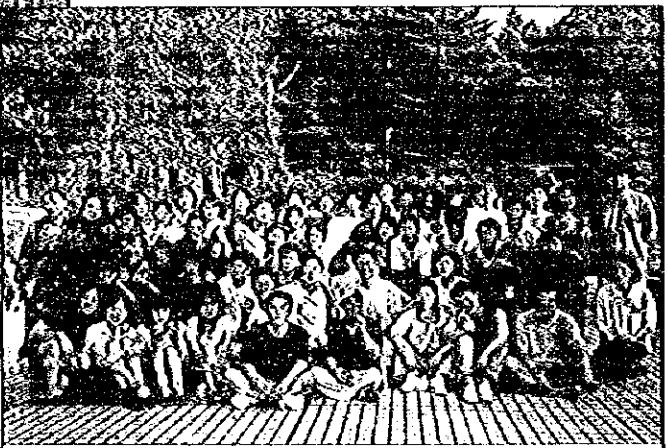
춤 자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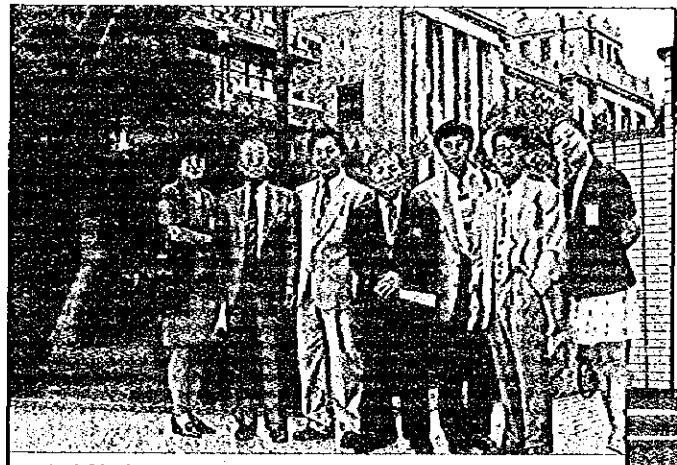
자, 웃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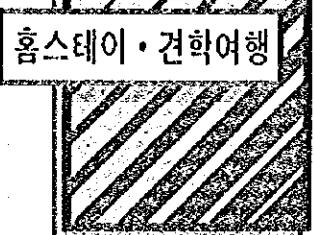


전체 발표



너무나도 즐거운 합숙세미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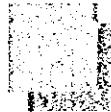




불꽃놀이를 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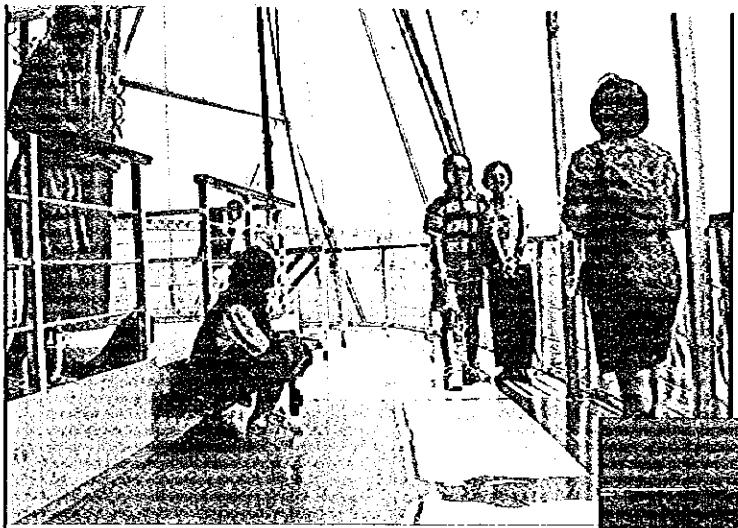
일본 가정식사를 앞에 두고



이거 어떻게 하지?



키요미즈데라에서



저 멀리 보이는 세토대교



환영!



평화를 기원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청년 초창 사업

미 리 말

「21세기를 위한 우정계획」은 국제협력사업단 (JICA) 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술협력의 일환으로 아세안을 비롯하여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각국으로부터 장래의 국가건설을 담당하게 될 청년들을 전문분야별로 일개월동안 일본에 초청하여 각분야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는 물론, 홈스테이 가족들과의 폭넓은 교류를 통하여 상호이해를 돋독히 하고 신뢰와 우정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초청사업입니다.

1984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12년간 일본을 방문한 각국의 청년은 13,45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초청국은 처음에는 아세안 6개국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태평양제국, 미얀마, 중국, 한국, 남서아시아제국, 봉고, 아프리카제국 및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인도차이나 삼국이 추가되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사업을 시작한지 13년째를 맞이한 1996년도에는 1,555명의 청년을 초청하여 무사히 초청사업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관계자 여러분들의 협력과 우정이란 지원이 있었던 덕분이라고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본 보고서는 초청청년 합숙세미나에 참가하였던 일본청년 및 홈스테이를 받아주신 전국의 호스트페밀리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감상문을 중심으로, 초청청년들의 한달 동안의 체재기록을 읽은 것입니다. 이 보고서가 본사업의 보다 큰 발전을 위한 자침서가 되고 또한 여러분들의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참가하신 전초청청년 및 각국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훈훈해지는 감상문과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년초청사업의 프로그램이 더욱더 뜻깊은 교류프로그램이 되도록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997년 3 월

국제협력사업단
인수사업부
부장 모리모토 마사루

차 랜 드

머리말

1. 대한민국 청년 초청사업

(1) 사업의 개요 7

(2) 사업 실적 8

2. 초청 청년 감상문 11

3. 합숙세미나 참가 일본청년의 말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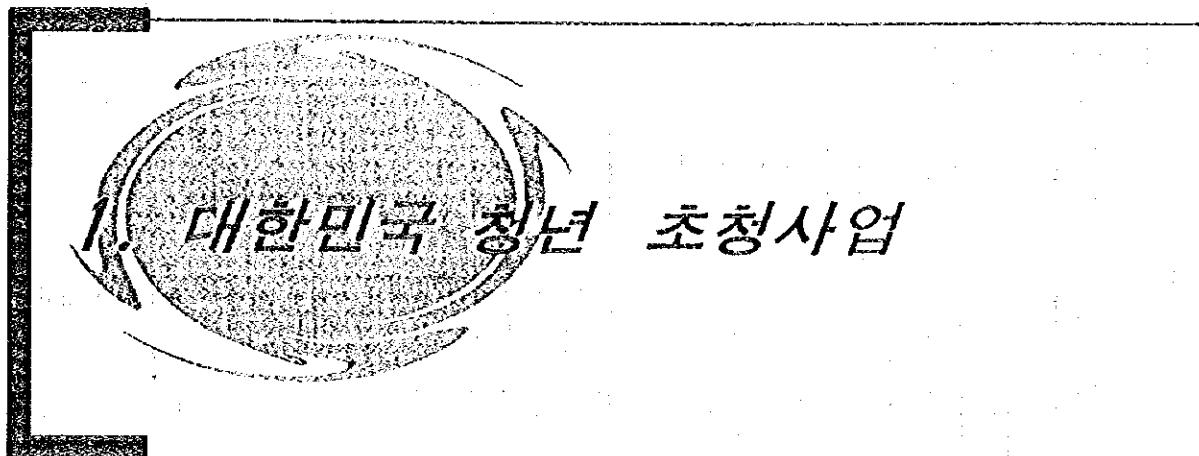
4. 흠풀스테이 가정이 느낀 인상 19

〈설적자료〉

1. 대한민국 청년 초청사업 실적 일람표 25

2. 1996년도 청년 초청사업 실적 일람표 26

〈초청 청년 명단〉 29



(1) 사업의 개요

1) 목적

21세기를 향하여, 한국과 일본의 우호와 협력관계를 보다 확고하고도 양찬 관계로 만들기 위해, 미래의 국가 건설을 담당하게 될 한국청년을 일본에 초청하여, 일본의 동생대 청년들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돋우히 하고 참된 우정과 신뢰를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실시 방법

(a) 초청 인원수

1996년도는 100명의 청년을 동시에 초청한다.

(b) 초청 대상자

아래와 같은 분야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18~35세의 청년.

(i) 청년지도자·공무원 25명

청소년활동자와 관계자, 스포츠·문화·사회봉사 등 단체관계자

(ii) 근로청년(공무원) 25명

기업 등 근로자, 공무원, 자녀리스트

(iii) 교원(유치원) 25명

교육기관 교원, 교육관계 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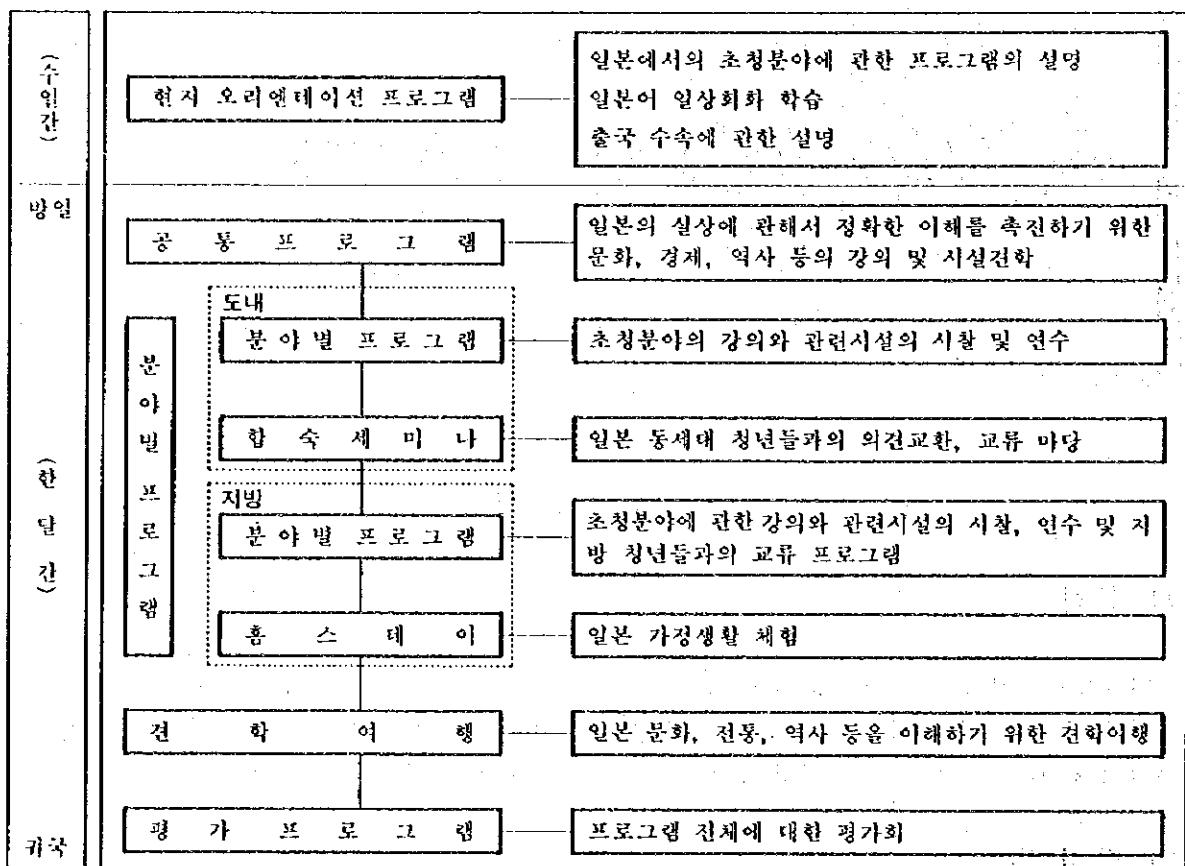
(iv) 학생(농수산학과제) 25명

대학생, 대학원생, 각종학교 등의 학생

(c) 초청기간 및 시기

7월 3일부터 8월 1일까지 30일간.

3) 프로그램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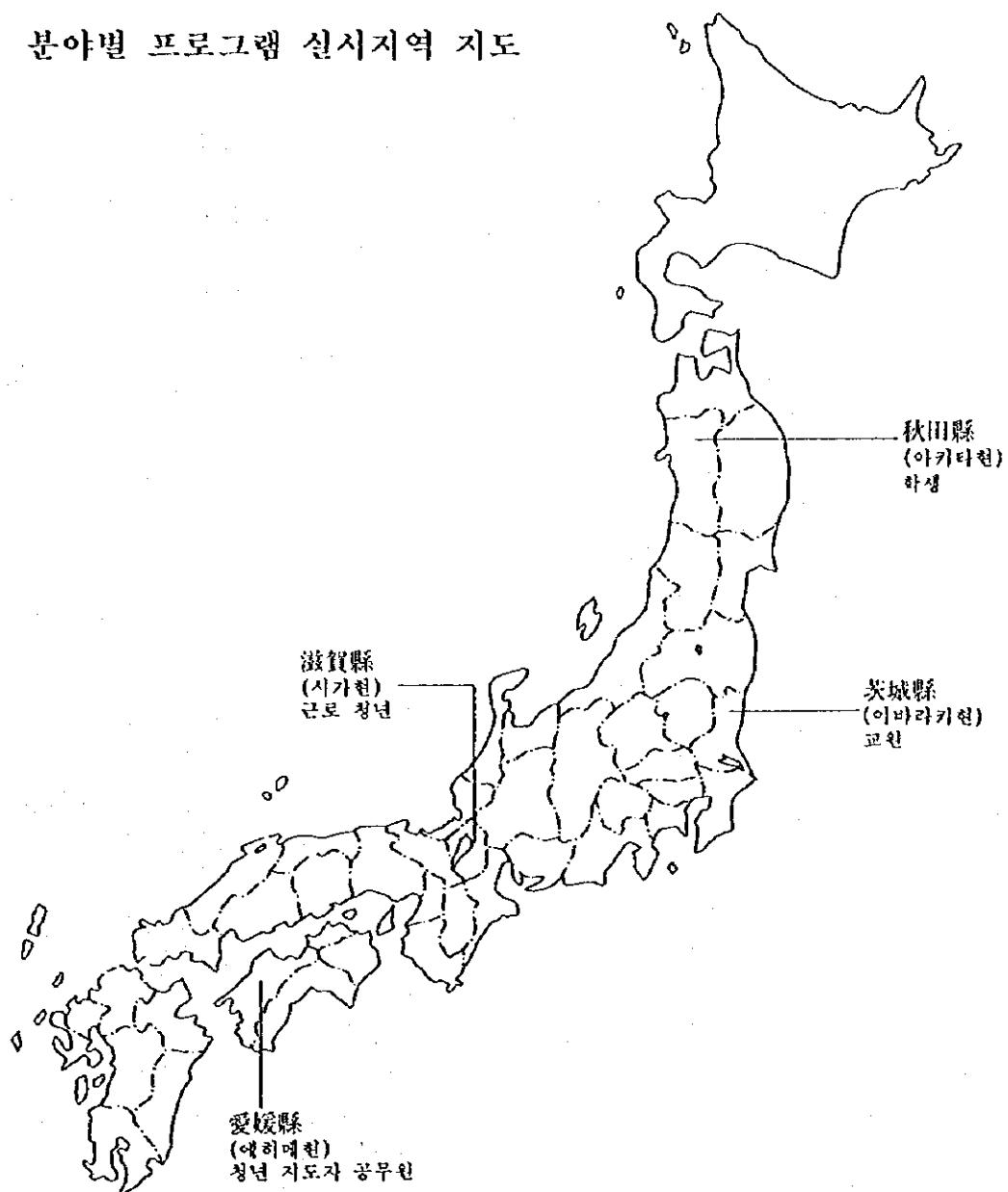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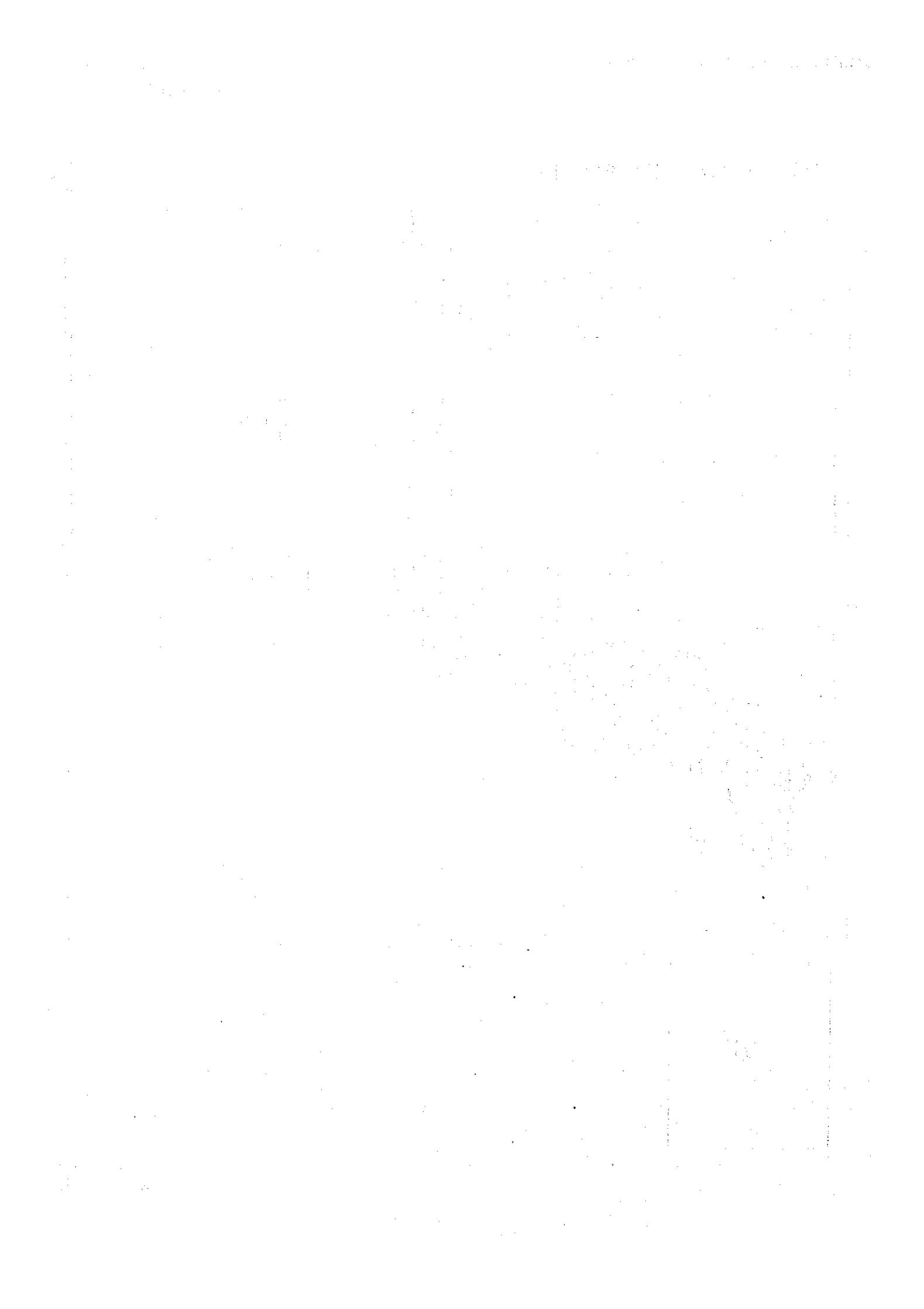
(2) 사업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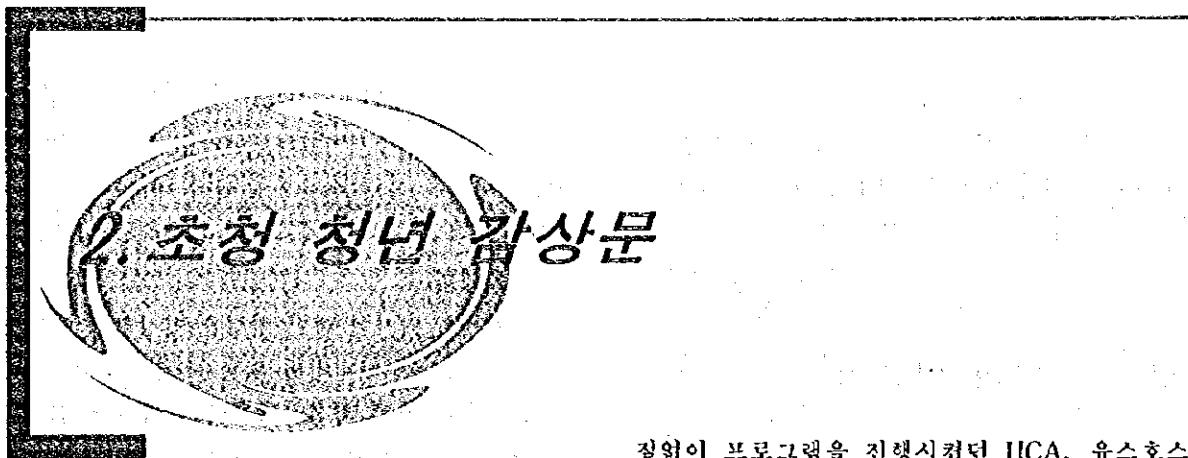
분야명	인원수	실시 협력단체	실시지역
청년지도자·공무원	25	일본 유스호스텔 협회	에히메
근로청년(공무원)	25	근로 후생 협회	사가
교원(유치원)	25	국제 교류 서비스 협회	이바라키
학생(농수산학과계)	25	세계 청소년 교류 협회	아키타

*공통·평가프로그램에 관해서는 日本國際協力センター가 전그룹을 대상으로 실시.

분야별 프로그램 실시지역 지도







일본방문을 마치고

남 소연
(청년지도자반)



한달이라는 여정은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한 나라를, 그것도 결마음과 속마음이 다르기로 이름난 “일본”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가깝고도 먼나라. 그러나 어차피 21세기를 향해 가야 할 수 밖에 없는 동반자!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대다수 한국인들의 감정은 유감스럽지만 부정적이다. 우리 일행을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아 주셨던 많은 일본인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과거사가 나 자신 짚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 무겁게 자리하고 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때문이리라.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미처 소화시키지 못할 만큼 많은 것을 보고 들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달동안의 진 일정동안 차

질없이 프로그램을 진행시켰던 JICA, 유스호스텔측 직원들을 비롯하여, 방문기관에서, 호텔에서 또는 관광지에서 만난 대다수 일본인들의 철저한 책임의식이었다. 이러한 것들이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사회를 굳건히 떠받치고 있는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예히메에서 지방문화와 지방자치제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었다. “바람 빛깔의 우편” 등을 제작하고 있는 “코스모스”라는 자원봉사단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청바지 유니폼의 후지타씨, 특유의 유우머와 성실함으로 우리를 맞아준 예히메현 국제교류협회의 후지이씨 등여러 일본인들에게 받은 감동은 쉽게 잊혀질 것 같지 않다. 일본 가정에서의 흄스테이 등도 매우 뜻깊은 체험이었다.

오늘밤이 일본에서의 마지막 밤이다.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가 또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게 된다. 한달동안 이곳 일본에서 체험한 모든 일들이 꿈결인듯 머리속을 스쳐 지나간다.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참으로 소중한 기억이 될 것이다.

일본은 분명 우리 옆에 존재한다. 그것도 세계를 움직이는 강대국의 모습으로……. 또 한편으로 21세기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면서……. 21세기는 심든 좋은 한일 양국이 서로 협력하여 공존할 수 밖에 있다.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더 한층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렵겠지만 양국간의 과거사에 관한 문제가 어떻게든 매듭지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얘기하는 “우정”은 분명 공허한

것이 될 것이므로…….

같으로 한 달 동안의 긴 여정 내내 아낌없는 노력과 편의를 제공해준 JICA측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 글을 엮고자 한다.

한국 청년의 일본기

노 충덕
(근로청년반)



일개월 동안의 일본 체류를 끝내며 주관적 견지에서 기대보다 많은 것을 느꼈다. 어떤 일본인은 일본의 목표가 없다고 하나 나는 그렇지 않다는 느낌이 강하다. 선진국으로서의 일본의 지위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

본인이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일본은 자본주의에 충실히다. 낫산의 노력, 히코네의 남극체험관, 니시진 등을 전통을 부르며 창조하고 있었다. 우리에겐 남극기지란 대중에게 역사적 사실일 뿐이고 니시진과 유전의 전통은 부의 창조와는 별개의 것으로 존재한다.

둘째, 일본의 교육에 대한 확신과 투자를 보며 일본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했다. 교육은 시가현의 젊은 청년들이 벌였던 자율적인 자연보호활동에서 이미 좋은 결과를 냥고 있었다.

세째, 교통에 대한 인간중심의 사고방식. 예를 들면, 횡단보도 앞의 정자선 설정, 제한속도 준수, 친절함 등은 일본의 교통체계가 엔트로피를 최소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네째, 직무에 충실하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각인을 받았다. 교토토역 구내의 흉연구역

을 청소하는 할아버지의 행동은 체재기간 중 나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다. 더러운 광초를 수거하고 새밀이를 하얀 수건으로 닦아 내고 물을 길어 주는 일련의 작업은 자기업무에 충실한 일본인의 단민이었다.

몇 가지의 역사에 대한 진실을 인정하고 인류에 대한 공헌이 동반된다면 일본은 지금과 같은 기위를 유지하리라 확신하며, 나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내가 본 일본, 그리고 일본인

김 미아
(교원반)



일본에 오기 전 나에게는 하나의 화제가 있었다. “경제대국”이라고 불리우는 일본의, 일본을 탐해 나아가는 그 무언가 (Energy 등) 를 찾고 싶었고, 최신 시설의 박물관, 잘 만들어진 일본 제품들을 볼때마다 만든 사람들의 정신을 만나고 싶었다. 이제 이 연수를 마무리하면서 내 시작에서 보았던 일본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느꼈던 질서의식과 빈틈없는 공공장소의 깨끗함은 일본인의 특성을 보는 듯했다. 그렇지만 개개인의 일본사람들을 만나보니 친절하고 부드러워서 강한 인상은 별로 받지 않았다. 그러나 흠크스테이를 경험하고나서야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김소와 자체가 몸에 앤 60대 할머니의 있는 그대로의 생활을 보고, 또 다른 가정도 방문해 보니 밖에서 본 모습과는 달리 집안에는 어떤 걸치지도 보이지 않았다. 단지 한 그릇의 우동을 먹고자 기다리는 사람

들의 인내심과 글쓰는 것, 차마시는 것, 꽃꽂이 하나에도 “道”라는 말을 사용하는 일본인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자신을 다스리는 자제력과 인내를 터득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개인의 이익보다는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질서를 지키고 인내하며 양보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이 세계를 향하는 보이지 않는 힘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한편으로 하라주크에서 본 현란한 젊은이들은 일본 미래의 한 부분인지, 일본화하는 과정 중의 한 단계인지에 대한 의아심도 들었다. 젊은 기간이지만 일본을 체험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전통문화와 역사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우리것에 대해 더욱 연구해야겠다는 새로운 의지가 솟아 오른다. 마지막으로 소중한 체험을 하게 해주신 관계자 제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본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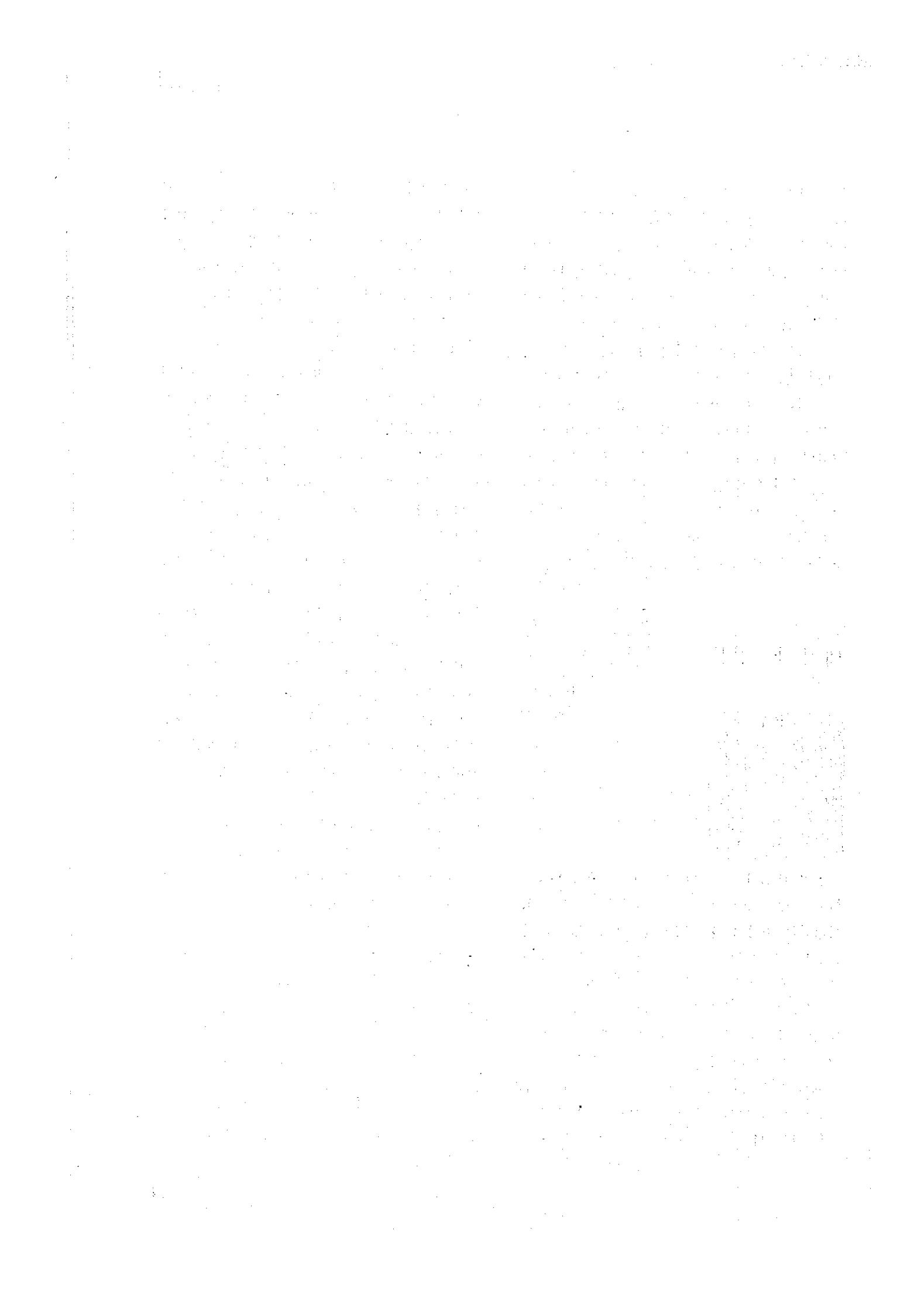
최 안배
(학생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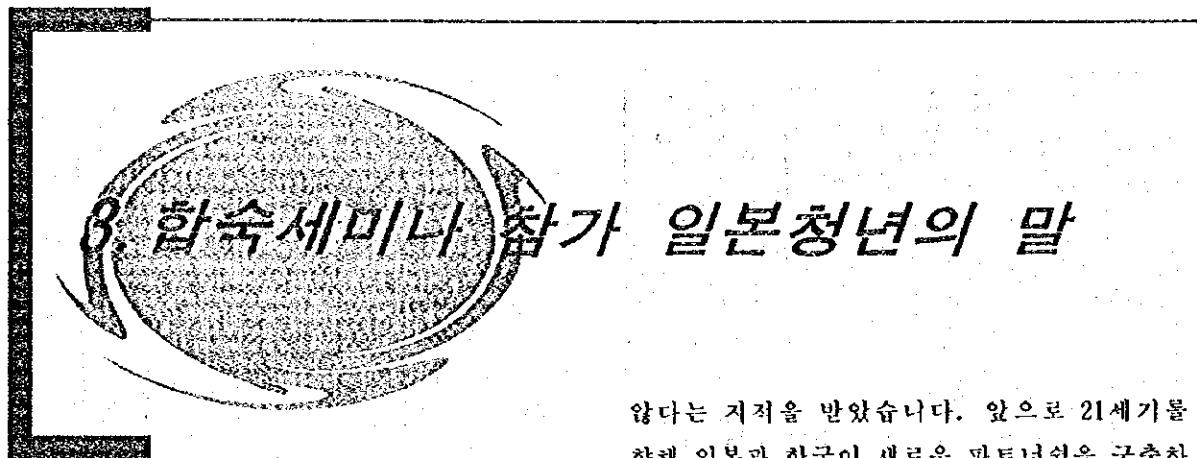


동경에 도착한 우리는 비슷한 건물과 비슷한 얼굴의 일본인 사이에서 일단 편안함을 느꼈다. 여러 경험중에서 가장 의미있는 일은 일본인 친

구와의 거리낌없는 대화였다. 일본 친구들은 전쟁의 아픔을 느낀 나라로서 일본의 국방력 증강에 무관심 내지 배타적 감정을 가지고 있고, 풍요로운 일본이지만 나름대로의 문제 또한 심각하다고 했다. 명치유신 이후 해외 유학파에 의해 이루어진 개혁은 선진문물의 “주체적 모방” 아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본특유의 집단의식, 근면함, 친절함을 발판으로 50년대 전후의 상처를 말끔히 지우고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이 된 지금, 미래에 대한 이상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고 한다. 대중음식점에서 연신 “아리 가또 고자이마스”를 외치는 점원과 낫산 자동차의 중년 근로자의 노련한 손놀림, 길을 묻는 우리에게 직접 지도를 사서 안내를 해주는 아주 머니, 연중 크고 작은 축제가 끊이지 않는 지방 마을, 화려하고 다양한 과자류와 수공예품, 많은 공원과 위락시설 등이 과거와 현재의 일본이 있다면, 자정이 넘어 공원에서 허공을 보며 쉬고 있는 회사원과 가지각색의 머리염색을 한 하라주크 공원의 젊은이들, 거리의 수많은 빠찡고 가게, 술에 취해 휘청거리는 밤늦은 거리의 젊은이, 옴진리교의 사회테러 등은 집단속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일본인들의 또 다른 몸부림으로 비쳐졌다.

비슷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한국의 학생으로 이번 인수는 나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친절하고 근면한 일본에서 외국에 대한 첫 인상을 남기게 된 것이 매우 기쁘다.





한국 젊은이들에게 배운 것

마츠오카 사쿠라코(松岡さくら子)
(단체 직원)

한국이라고 하면 일본에서 아주 가깝고 제일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숙세미나 분과회에서 한국 젊은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한국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일본 국내에는 수많은 재일 한국·조선인들이 살고 있으며 제집 근처에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자주 놀던 친구중에도 있었는데, 거의 일본사람들과 같아서 구별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일상 생활에서 그들이 재일 한국·조선인임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그들의 문화나 역사를 배울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자신 배우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문화와 역사에 공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일본사회 구조나 지역 주민들의 의식 구조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 분과회에서 한국 젊은이들에게, 일본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21세기를 향해 일본과 한국이 새로운 파트너쉽을 구축하려면, 우선 서로에게 흥미나 관심을 갖고 서로를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일상적인 것에도 눈을 돌려 주변에 있는 작은 일부부터 고치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통역을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이 세미나를 위해 노고해 주신 스탠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경보다 가까운 나라

이케다 히사시(池田 尚)
(공무원)

나는 지금 지도를 보고 있다. 알고는 있었지만 나의 고향인 후쿠오카로부터 부산까지는 아주 가깝다. 자동차로 절 필요도 없이 동경과 거의 거리보다 훨씬 가깝다. 다만, 츠시마 해협(대한 해협과 국경이 있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해협은 육안으로 볼 수 있으나 국경선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지도를 보고 있자니, 한국은 다른 색으로 인쇄되어 있다. 그러나 처음으로 사귄 한국 친구들을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서는 두나라의 색깔 구별이 잊어졌다.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국경선은 츠시마해협(대한 해협) 위에 그려진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새겨진 것인지도 모른다.

내 뇌리에는 지금도 아리랑 노래가 새겨져 있어 좀처럼 떠나려 하지 않는다. CD를 사서 몇 번이고 들었기 때문도 있겠지만, 내가 처음으로



들은 아리랑 노래와 춤에 향수와도 같은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어릴 때 고향인 치쿠호(筑豊)에서 본·본오도리(盆踊り) 음력 7월 15일 전후에 전국 각 지방에서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추는 춤의 장면과 겹쳐져서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른다. 아리랑 노래 중에 나오는 독창부문은 본오도리에서 나오는 하우타(端唄—江戸時代 말기의 가곡)와 비슷하다. 나에게 한국은 동경보다 가까운 곳이다. 그렇게 느낀 이유는 아리랑뿐만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일본어의 「히토츠」는 「하나」라고도 하는데, 한국어의 “하나”의 뜻은 일본어로 「히토츠」이다. 노래와 춤을 즐기는 점, 단결력, 친한 사람에게 마음을 다 보여주는 교제 방법, 「새빨간 거짓말」이나 「새하얀 밤」 등과 같은 표현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생김새이다. 후쿠오카 특산물로 잘 알려져 있는 후지 明太子(빨간 고추가루가 들어간 명란젓)의 뿌리는 아마도 한국 김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닐까 하고 상상해 보기로 한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이후, 나는 통근 철에서 한국어 회화책을 보게 되었다. 세미나 때의 만남만으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도 한국 친구와의 교제를 이어나가고 싶기 때문이다. 이 회화책이 멀지 않은 시기에 유용하게 쓰이게 되기를 믿으면서 나의 감상문을 대신한다.

다음엔 한국에서 만납시다

야마사키 미사(山崎みさ)
(단체 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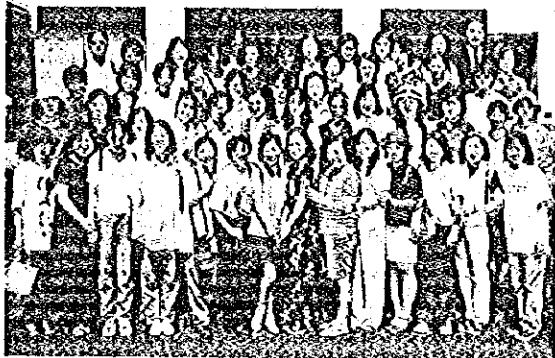
한마디로, 명랑하다는 것이 이번에 처음 만난 한국사람들의 인상이었습니다. 그녀들에게 일본은 외국이며, 이문화권 속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멀다른 두려움도 어색함도 없이 우리들을 선도해가는 적극성은 합숙 세미너를 마친 지금도, 제 마음속에 “본받아야 할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웃고 놀던 운동대회, 상대방 언어로 자기 소개를 한 교환회, 결혼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토론회, 자기나라 문화를 소개한 교류의 밤, 그리고 대자연 속에서 즐긴 뱃놀이 등등, 모두가 소중한 경험이 되어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녀들과 같이 웃고 놀면서,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는 한국이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로 느껴졌습니다. 한편, 역사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서로가 거북하게 여기는 상대방을 의식하게 되어, 역시 “먼 나라” 인가보다 라고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든 것도 잠시일 뿐, 하물없이 대하는 그녀들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서로가 마치 자매관계와 같은,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들이 서로 가리낌없이 활짝을 끼거나, 손을 잡거나 하는 것을 보면서 일본보다 스킨십이 많은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러한 행동에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우리들도 합숙세미너가 끝날 무렵엔 아주 잡은 손에서 두터운 우정을 느꼈습니다.

친해지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는 한국 사람들과 보면 3일동안에 “마음의 부드러움과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엔 한국에서 만나자”는 약속



을 하며, 그녀들과 평생동안 친구로 사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숙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한학생 합숙세미나에 참석하여

아마다 가오리(山田香織)
(학생)

3박 4일 동안의 합숙세미나에 참석하여 일은 것이 무엇인지 열심히 생각했습니다. 그저 박임한 감동만이 떨려와 마음을 정리하여 논리적인 하게 표현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한국어, 한국문화, 그리고 한국역사에 대한 이해는 깊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라 할까, 그분들에 대한 친근감, 존경심 등 이런 종류의 감정이 섭인 따뜻한 애정이 새 마음 속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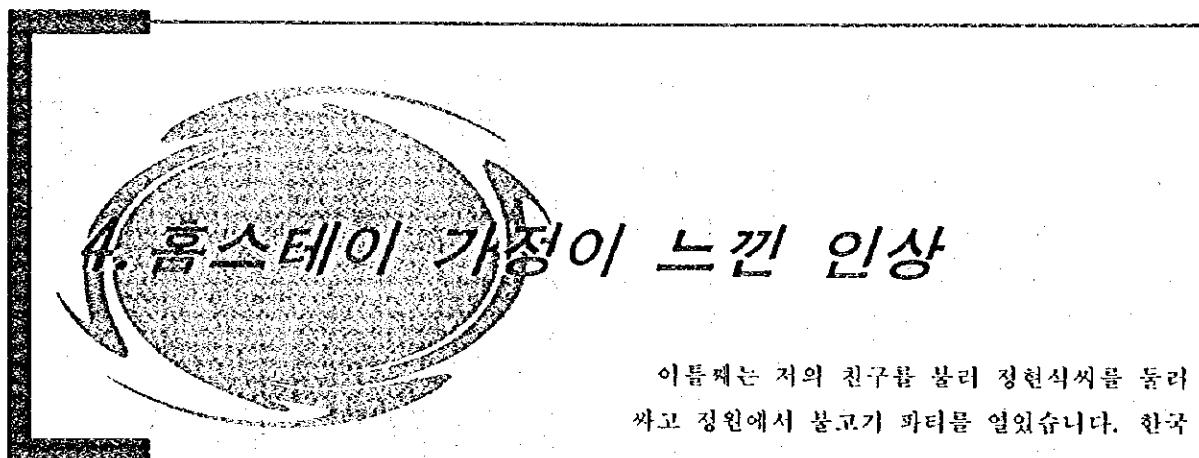
가득 차 있습니다.

세미나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조선에 관해서 공부했을 때, 그들에 대한 일본사람이 갖고 있는 인상은 다른 외국인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부정적임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제 일본인 친구도 한국사람에 대해서 이双重 인상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묻자 “왠지…”라는 대답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자리잡은 편견이나 차별감각은 논리적인 언어나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도 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외부로부터 새로운 것을 흡수한다는 것은, 설령 그것들이 옳은 사고방식이나 행동일지라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국인·조선인에 대한 이와같은 편견도 대부분 간접적인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기성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이어져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젊을때 형성되어 사람 마음을 지배하게 될 판단력을,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는 지금, 소문이나 사회 풍조에 친혹되지 않고 체험을 통해 형상시킬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점, 아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의 부정적인 풍조에 휩쓸린 그 친구에게 함께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이야말로 터없는 눈으로 한국인들과 마주 보면서 사귈 수 있는 새 세대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하자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홈스테이 가정이 느낀 인상

이웃 나라 친구를 맞아하여

스즈키 게이신(鈴木惠眞)
에히메현(愛媛県)

7월 19일에 에히메현 국제교류협회를 통해 한국인 청년을 소개받았습니다. 이웃 나라 정현식씨를 만나게 해 주신 점,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는 저와 같은 종교인이며 서로의 종교에 대해, 언어 장벽의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빌담 등을 통한 대화의 한때를 가졌습니다. 서로가 정확히 이해를 하였는지는 의문이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은 사실이며, 마음이 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보낸 3일 동안에 그에 대한 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바자린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첫날 저녁 준비를 할 때는, 튀김 가루를 묻히기도 하고 접시를 식탁에 준비하는 등,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식사 도중에도 주위 사람에게 신경을 써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어머니를 잘 도와 드린다는 말을 듣고 머리가 속여졌습니다. 또한, 그러한 그의 행동을 보고 한국에서 청소년지도에 민원을 발휘하고 있음이 금방 짐작이 갔습니다.

이틀째는 저의 친구를 불러 정현식씨를 둘러싸고 정원에서 불고기 파티를 열었습니다. 한국 산 양념을 선물받아 평소와는 다른 맛을 즐기면서, 한국문화의 일면을 체험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사후, 정현식씨의 요청으로, 친구가 색스폰 연주를 하고, 아이들은 피아노에 맞추어서 가요를 부르고, 그도 노래를 부르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그가 아이들과 불꽃놀이를 즐기는 모습에서, 저는 오랜 친구의 일몰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지냈던 3일이다 지나고, 우리 친구인 정현식씨는 좋은 추억과 우정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자원봉사로 시작했으나……

호리에 야요이(堀江彌生)
이바라키현(茨城県)

홈스테이 이야기를 남편이 처음 꺼냈을 때, 저는 반대하였습니다. 첫째 이유는 언어문제, 둘째는 가족처럼 대하면 된다고 하지만, 손님 대접이라는 감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마음이 무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과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이번만큼은 남편에 대한 자원봉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집에 오신 분은 한국인 여성으로 최윤미씨라는 유치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신경 쓰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라고 해놓고, 오히려 내쪽에서 신경이 쓰이는, 그런 힙스테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 한국에 대한 이야기 등,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서로의 나라를 이해하게 되면서 즐거운 힙스테이로 바꿔어 갔습니다. 또한, 서로 말이 통했을 때의 기쁨도 생기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이란 참 대단하구나 하고 느꼈는데, 그것은, 세살짜리 딸이 맨 먼저 그녀와 친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 방으로 들어간 딸과 그녀의 노는 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이 통할리도 없는데, 같이 놀 수 있는 걸 보면, 서로를 이해하고 친해지는데 딸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세 딸이 몸소 실천해 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에는 다른 힙스테이 가족과 합류하여 바베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한국의 민족 의상 (치마·저고리)을 입이보기도 하고 딸의 七五三 의상 (일본 기모노)을 입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이! 하는 새에 자나가 벼린 2박 3일이 있습니다. 그녀가 귀국하는 날엔 서운함마저 느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국을 가까운 나라로 인식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헤어질 때는 제 딸도 “언니 다시 놀러 오는 거예요” 라며 흥륭히 국제교류의 한 물을 담당한 것 같습니다.

서 이시 다음에 힙스테이 이야기가 나오면, 그 때는 남편에 대한 자원봉사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사회 활동으로 참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들들아, 화이팅!

다카다 나오시 (鷹田 直)
아키타현(秋田県)

우리집에서 외국인이 힙스테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얼마나 식사 대접을 잘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다소 불안하진 했지만, 가족회의 결과, 일본과 일본인을 이해시키는데 힙스테이 활동이 제일이라는 결론을 임었다. 또한, 꾸미지 말고 “일본, 시골, 농가” 이 세가지에 역점을 두어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첫날은 밤에 도착하여, 시골요리에 반주를 걸 들어 식사를 같이 하며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다음 날엔 농작업 경험도 해 보게 하였는데, 무엇보다 그들에게 제일의 추억으로 남은 것은 나의 부모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가까운 곳으로관광하러 나간 것이 아닌가 싶다. 그들중에는 조부모가 안계시는 학생도 있었는데 내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아주 즐기워 보였다. 내가 가장 감명깊게 느꼈던 것은 그들의 예절바른 태도이다. 무슨 일을 하든 윗사람 그리고 여성을 우선하는 겸허한 자세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식사대, 여자가 준비를 마치고 자리에 앉기 전에는 짓가락을 들지 않았다. 음료수를 받을 때도 따를 때도 반드시 자세를 바르게 하고, 두 손으로 하였다. 식사후의 실짓이는 물론이고, 농

작업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하였다. 손님이라고 식구들보다 반찬을 더주면 “같이 드시지요” 라며 사양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내쪽이 쑥스러웠다. 나에게는 그들과 동년배의 장남과 그 밑으로 두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일본 농업에 대해 관심이 깊어 밤늦게 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부분은 아들들이 영어 실력을 동원하여 이야기꽃이

피어 새어있었다. 서로 상대방 나라를 이해하면서, 농업을 세계의 식량원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는 생각이 든다.

학생들 중에 두사람은 앞으로 농업과 관련이 있는 교사나 공무원이 된다고 하였다. 목적을 향해 진진해 주기를 바란다. 몇 년후 신혼이행으로, 우리집을 방문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작별 인사를 하였다. “고맙습니다”라는 그들의 말은, 내가 그들에게 해야 할 말임을 실감나게 해주는, 그런 마음 흐뭇한 3일이었다.

실적자료

1. 대한민국 청년 초청사업 실적 일람표

● 1992년도 (99명)

	인수	실시협력단체	실시지역	JICA지부	지방협력단체
학 生	26	세계청소년교류협회	사즈오카	칸토오	시즈오카현 국제교류협회
교 원	25	일본국제협력센터	아키타	토오호쿠	아키타현 국제교류협회
근로청년	25	근로후생협회	에히메	시코쿠	에히메현 청년해외협력협회
청년지도자	23	청소년육성국민회의	홋가이도	홋가이도	홋가이도 YMCA

● 1993년도 (96명)

	인수	실시협력단체	실시지역	JICA지부	지방협력단체
학 生	25	세계청소년교류협회	이시카와	호쿠리쿠	이시카와현 세계청년우호회
교 원	24	일본국제협력센터	이와테	토오호쿠	(재)이와테현 국제교류협회
근로청년	23	근로후생협회	코우치	시코쿠	(재)일본청년회의소 코우치불록 협의회
청년지도자	24	일본유스호스텔협회	나이가타	칸토오	(재)나이가타현 유스호스텔협회

● 1994년도 (100명)

	인수	실시협력단체	실시지역	JICA지부	지방협력단체
청년지도자	25	일본유스호스텔협회	오키나와	오키나와	오키나와현 유스호스텔협회
교 원	25	청년해외협력협회	홋가이도	홋가이도	홋가이도 청년해외협력대 OB회 동지부
근로청년	25	근로후생협회	사이타마	칸토오	아게오시 국제교류추진위원회
학 生	25	세계청소년교류협회	나이가타	칸토오	나이가타현 세계청소년우호회

● 1995년도 (98명)

	인수	실시협력단체	실시지역	JICA지부	지방협력단체
청년지도자·공무원	25	국제교류서비스협회	나이가타	칸토오	(재)나이가타현 국제교류협회
근로청년	23	근로후생협회	사이타마	칸토오	아게오시 국제교류추진위원회
교 원	25	일본유스호스텔협회	후쿠이	호쿠리쿠	(재)후쿠이현 국제교류협회
학 生	25	세계청소년교류협회	아키타	토오호쿠	아키타현 세계청소년우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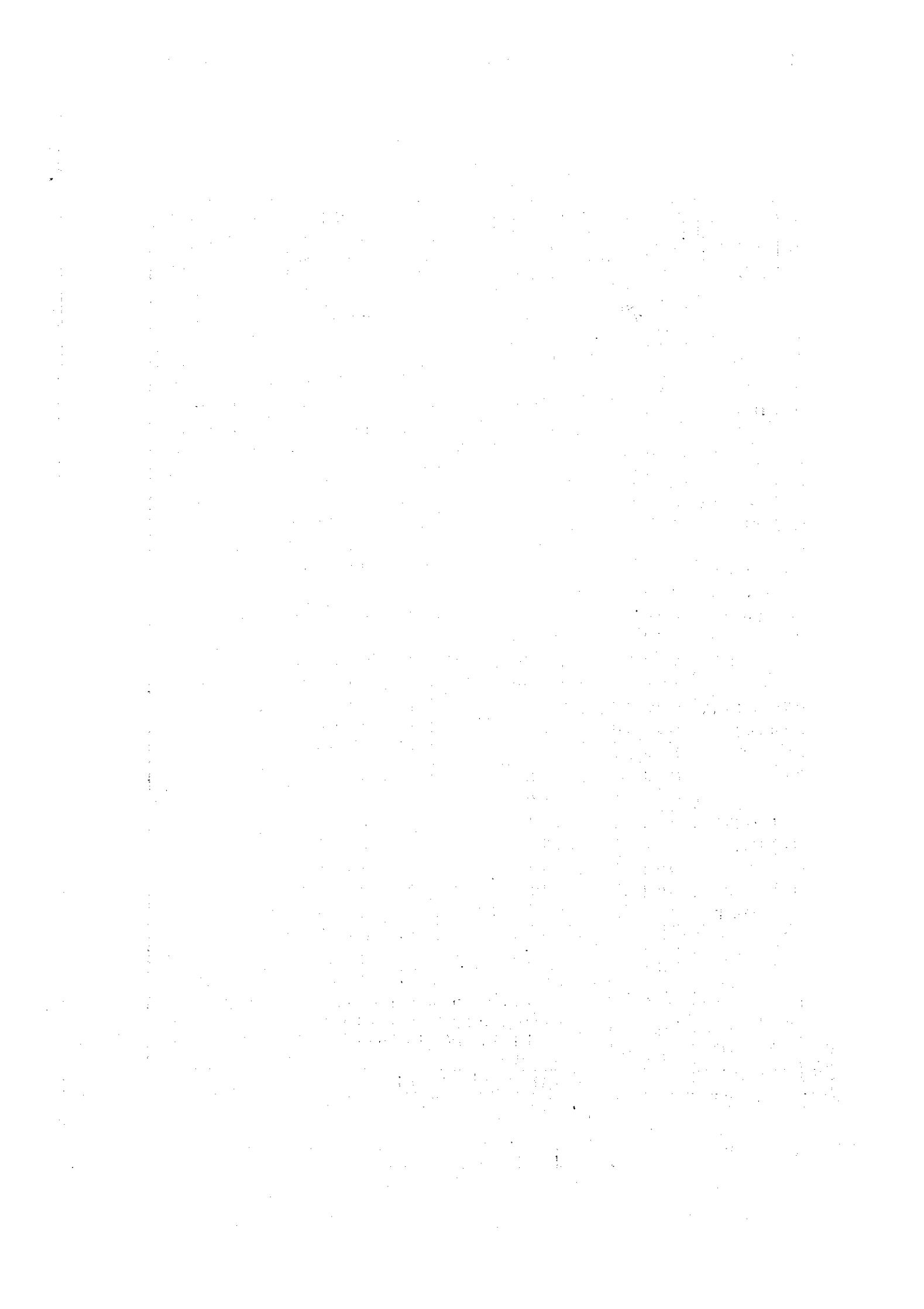
● 1996년도 (100명)

	인수	실시협력단체	실시지역	JICA지부	지방협력단체
청년지도자·공무원	25	일본유스호스텔협회	에히메	시코쿠	(재)에히메현 국제교류협회
근로청년	25	근로후생협회	시가	칸사이	시가현 청년단체연합회
교 원	25	국제교류서비스협회	이바라키	츠쿠바국제센터	1996년도 이바라기현 외국청년 초청사업 실행위원회
학 生	25	세계청소년교류협회	아키타	토오호쿠	(재)아키타현 국제교류협회

2. 1996년도 청년 초청사업 실적 일람표

실시기간	국 명	분 야 명	인수	실시 협력 단체	실시지역
5월 16일~6월 14일 1 진 116명	인도네시아	사회 개발	25	일본 유스호스텔 협회	홋카이도
	인도네시아	경제A	20	일본 경제 청년 협의회	후쿠이
	인도네시아	경제B	24	근로 후생 협회	시마네
	필리핀	교육	22	청소년 육성 국민회의	야마나시
	필리핀	사회 개발	25	청년 해외 협력 협회	홋카이도
5월 22일~6월 20일 2 진 118명	싱가폴	교육	22	세계 청소년 교류 협회	오카야마
	싱가폴	사회 개발	25	유스 워커 능력 개발 협회	미야자키
	싱가폴	경제B	24	국제 교류 서비스 협회	토야마
	태국	교육	22	청소년 육성 국민회의	홋카이도
	태국	사회 개발	25	일본 우에 청년 협회	오카야마
6월 5일~7월 4일 3 진 99명	베트남	공무원	25	공무 염수 협의회	홋카이도
	베트남	경제	24	근로 후생 협회	오사카
	말레이지아	경제 경영	25	세계 청소년 교류 협회	후쿠시마
	말레이지아	중소기업	25	일본 유스호스텔 협회	오이타
6월 20일~7월 19일 4 진 92명	싱가폴	경제A1	20	유스 워커 능력 개발 협회	히로시마
	싱가폴	경제A2	24	일본 경제 청년 협의회	사이타마
	캄보디아	교육	30	청소년 육성 국민회의	아마가타
	라오스	교육	18	국제 교류 서비스 협회	코우치
6월 27일~7월 26일 5 진 89명	태평양 혼성	공무원	24	청년 해외 협력 협회	에히메
	태평양 혼성	교원	23	일본 국제 생활 체험 협회	미에
	파푸아뉴기니	공무원	10	세계 청소년 교류 협회	홋카이도
	파푸아뉴기니	교원	20	일본 국제 협력 센터	아마구치
	피지	공무원	12	아이치현 국제 교류 협회	아이치
7월 3일~8월 1일 6 진 100명	한국	청년 지도자 공무원	25	일본 유스호스텔 협회	에히메
	한국	근로 청년(공무원)	25	근로 후생 협회	시가
	한국	교원(유치원)	25	국제 교류 서비스 협회	이바라키
	한국	학생(농수산학과계)	25	세계 청소년 교류 협회	아키타
8월 21일~9월 19일 7 진 119명	베트남	교육	25	유스 워커 능력 개발 협회	오키나와
	베트남	농업	25	청년 해외 협력 협회	구마모토
	필리핀	경제A	20	일본 유스호스텔 협회	가고시마
	필리핀	경제B	24	일본 경제 청년 협의회	카가와
	필리핀	농업	25	세계 청소년 교류 협회	아오모리
8월 29일~9월 27일 8 진 97명	বাংলাদেশ	공무원	20	청년 해외 협력 협회	홋카이도
	부탄·ম্যানাইব	교원	10	일본 유네스코 협회 연맹	사가
	인도	교원(이수화)	27	세계 청소년 교류 협회	기후
	네팔	교육	10	일본 국제 협력 센터	나이가타
	스리랑카	교육	10	청소년 육성 국민회의	와카야마
	파키스탄	보건 의료	20	국제 간호 교류 협회	후쿠오카

실시기간	국 명	분야명	인수	실시 협력 단체	실시지역
9월 11일~10월 10일 9진 115명	태국	농업	25	청년 해외 협력 협회	사즈호카
	태국	경제A	20	일본 국제 협력 센터	후쿠오카
	태국	경제B	24	근로 후생 협회	아이치
	브루네이	사회 개발	16	일본 유스호스텔 협회	이시카와
	미얀마	교육	20	청소년 육성 국민회의	흑가이도
	몽골	공무원	10	국제 교류 서비스 협회	이시카와
9월 19일~10월 18일 10진 113명	말레이지아	농업 개발	16	청년 해외 협력 협회	이와테
	말레이지아	교육	25	일본 국제 생활 체험 협회	코토
	말레이지아	과학기술 개발	25	토요가와시 국제 교류 협회	아이치
	인도네시아	농업	25	세계 청소년 교류 협회	카가와
	인도네시아	교육	22	일본 국제 협력 센터	야마가타
10월 2일~10월 31일 11진 100명	중국	청년 지도자	25	일본 유스호스텔 협회	미야기
	중국	경제 청년	25	일본 경제 청년 협의회	나가사키
	중국	공무원	25	유스 워커 능력 개발 협회	후쿠이
	중국	교원	25	일본 국제 협력 센터	효고
10월 17일~11월 15일 12진 95명	아프리카				
	영어권	여성 교원 1	28	오사카부 국제 교류 재단	오사카
	불어권	여성 교원 2	22	청년 해외 협력 협회	오카야마
	영어권	경제 개발 공무원 1	23	국제 교류 서비스 협회	도쿠시마
	불어권	경제 개발 공무원 2	22	세계 청소년 교류 협회	나이가타
10월 23일~11월 21일 13진 88명	아세안 혼성	교육 1	18	오사카부 국제 교류 재단	오사카
	아세안 혼성	교육 2	17	일본 국제 생활 체험 협회	군마
	아세안 혼성	경제 1	18	일본 국제 협력 센터	치바
	아세안 혼성	경제 2	18	청소년 육성 국민회의	후쿠오카
	아세안 혼성	경제 3	17	근로 후생 협회	사즈호카
11월 6일~12월 5일 14진 114명	아세안 혼성	환경 보전	30	일본 경제 청년 협의회	흑가이도
	아세안 혼성	사회 복지	30	일본 유스호스텔 협회	이시카와
	아세안 혼성	보건 의료	30	국제 간호 교류 협회	나라
	아세안 혼성	행정B	24	국제 교류 서비스 협회	오사카
11월 13일~12월 12일 15진 100명	중국	산업 기반 정비	25	세계 청소년 교류 협회	야마구치
	중국	경제 개발	25	근로 후생 협회	토치기
	중국	지역 전통	25	일본 국제 협력 센터	돗토리
	중국	인재 육성	25	청년 해외 협력 협회	오키나와
합계	70개 그룹 1,555명	아세안 6개국(797), 태평양 14개국·지역(89), 미얀마(20), 중국(200), 한국(100), 남서 아시아 제국 7개국(97), 몽골(10), 아프리카 제국 38개국 1국제기관(95), 캄보디아(30), 라오스(18) 베트남(99) 계 72개국·지역, 1 국제기관			



초청 청년 명단

청년지도자 · 공무원



박 중규 (朴 重奎)
Park Jung-Kyu



남 소연 (南 沼蓮)
Nam So-Yeon



도 종수 (都 鍾洙)
Do Jong-Soo



정 길수 (丁 吉洙)
Jeong Gil-Soo



김 경남 (金 耀男)
Kim Kyung-Nam



박 병주 (朴 炳柱)
Park Bong-Joo



강 성태 (姜 成泰)
Kang Seong-Tae



김 성일 (金 成一)
Kim Sung-II



이 동훈 (李 東薰)
Lee Dong-Hun



정 춘희 (鄭 春姬)
Chung Chun-Hee



신 의경 (申 義敬)
Shin Eui-Kyung



김 한섭 (金 漢燮)
Kim Han-Soub



황 병세 (黃 威世)
Hwang Byeong-Se



김 도균 (金 度均)
Kim Do-Gyun



조 혜숙 (趙 惠淑)
Cho Hye-Sook



이 연숙 (李 姚淑)
Lee Youn-Suk



정 현숙 (鄭 鏡淑)
Jeong Hyun-Suk



이 동희 (李 東姪)
Lee Dong-Hee



남 현성 (南 鑫城)
Nam Hyun-Sung



이 향림 (李 香林)
Lee Hyang-Lim



안 학정 (安 鶴靜)
An Hak-Jeng



장 영아 (鄭英芽)
Jung Youn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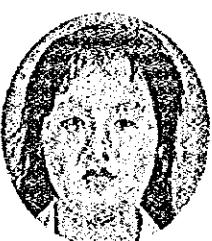


박 정화 (朴貞和)
Park Jung-Hwa



박 영선 (朴榮先)
Park Young-Sun

근로청년



장 수경 (張秀卿)
Chang Su-Kyung



박 주옥 (朴珠玉)
Park Ju-Ok



나 서경 (羅西京)
Na Seo-Kyung



최 진 (崔珍)
Choi Jin



이 선형 (李善炯)
Lee Sun-Hyung



한 현경 (韓賢暎)
Han Hyeon-Kyeong



신 영례 (申英禮)
Shin Young-Rea



우 현숙 (禹鉉淑)
Woo Hyeon-Suk



이 영일 (李榮一)
Lee Young-II



전 호수 (田吳秀)
Jeon Ho-Su



유 해경 (柳海暎)
You Hae-Kyung



전 춘성 (全春誠)
Jeon Chun-Sung



이 종철 (李鍾哲)
Lee Jong-Cheul



김 영식 (金永植)
Kim Young-Sig



고 영구 (高英九)
Go Young-Goo



이 광언 (李光彦)
Lee Kwang-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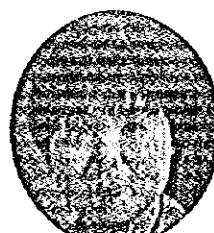
김 정수 (金 正洙)
Kim Jeong-Soo



김 명심 (金 明心)
Kim Myung-Sim



조 춘태 (曹 春澤)
Cho Chun-Taek



김 효정 (金 孝貞)
Kim Hyo-Jeong



노 충덕 (盧 忠德)
Rho Choong-Deok



유 희정 (柳 熙靜)
Lyu Hee-Jung



신 성칠 (申 成哲)
Shin Sung-Chul



권 미애 (權 美愛)
Kwon Mi-Ae



이 경선 (李 庚善)
Lee Kyung-Sun



전 혜성 (全 惠星)
Jeon Hye-Seong



최 수자 (崔 秀子)
Choi Soo-Ja



양 연설 (梁 連實)
Yang Yean-Sill



장 효정 (張 孝貞)
Jang Hyo-Je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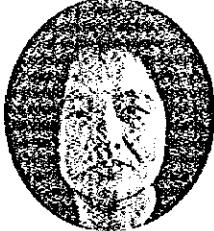
황 은숙 (黃 恩淑)
Hwang Un-Suk



이 옥주 (李 玉珠)
Lee Ok-Ju



박 현주 (朴 賢珠)
Park Hyun-Ju



류 은옥 (柳 垂玉)
Ryu Eun-Ok



오 정은 (吳 妪殷)
Oh Jung-Eun



최 윤미 (崔 尤美)
Choi Yoon-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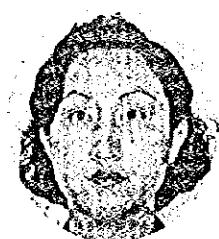


김 순옥 (金 順玉)
Kim Sun-Ok



홍 신희 (洪 普姬)
Hong Sun-Hee

교 원



전 혜경 (全 惠璟)
Juen Hea-Kung



이 은주 (李 恩珠)
Lee Eun-Ju



신 금주 (申 錦珠)
Sin Kum-Ju



이 명자 (李 明子)
Lee Myung-Ja



김 정아 (金 延我)
Kim Young-A



김 희 (金 姫)
Kim Hee



김 선숙 (金 先淑)
Kim Sun-Sook



윤 양수 (尹 楊秀)
Yun Yang-S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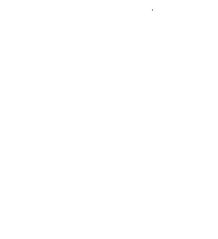
서 주옥 (徐 州玉)
Seo Ju-Ok



김 희숙 (金 喜淑)
Kim Heu-Sook



김 미아 (金 美兒)
Kim Mi-A



최 인배 (崔 仁培)
Choi In-Bea



강 미정 (姜 美正)
Kang Mi-Jeong



최 용운 (崔 龍雲)
Choi Yong-Woon



염 수일 (廉 守一)
Yeom Su-Hi



이 두수 (李 斗秀)
Lee Doo-Soo



이승신 (李 承信)
Lee Seung-Shin



정 진영 (鄭 晉永)
Jeong Jin-Young



임 경호 (林 敬鎬)
Im Kyeong-Ho



김 중석 (金 重奭)
Kim Jung-Suk



김 소림 (金 小林)
Kim So-Rim

하 생



김 수진 (金 秀珍)
Kim Su-Jin



고 철민 (高 哲民)
Ko Chul-Min



김 지연 (金 志妍)
Kim Ji-Youn



이 재천 (李 宰天)
Lee Jae-Chun



이 제홍 (李 制洪)
Lee Je-Hong



안 병욱 (安秉暉)
Ahn Bung-Uk



박 연희 (朴蓮暉)
Park Yeon-Hee



윤 상희 (尹相熙)
Yun Sang-Hee



허 태환 (許 泰惠)
Huh Tae-Huhn



이 재순 (李 在順)
Lee Jae-Sun



김 자영 (金 慈瑛)
Kim Ja-Young



이 은필 (李 殷筆)
Lee Eun-Pil



이 강진 (李 康鎮)
Lee Kang-Jin



이 재현 (李 在玄)
Lee Jae-Hyun



이 도형 (李 道炯)
Lee Do-Hyung

청년 초청사업 --한국--[교류 보고서](1996)

발행 Youth Invitation Division
Training Affairs Department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주소 SHINJUKU MAYNDS TOWER
2-1-1, Yoyogi, Shibuya-ku, Tokyo 151 Japan
전화 (03) 5352-5402~3

편집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Center
International Exchanges Department

주소 Shinjuku Mitsui Bldg., 9F,
2-1-1, Nishi-Shinjuku, Shinjuku-ku, Tokyo 163-04 Japan
전화 (03) 5322-2561

무단전재를 금합니다.

